



무더위, 코로나19 그리고 임단협과 노사협의회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노동하기, 방송하기 어려운 계절입니다. 임기 2개월을 넘긴 노조 집행부는 하루를 한 달 같이, 한 달을 1년 같이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집행부에서 개시한 2021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임단협) 실무 협의를 지난달 19일에 재개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삶과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또한, 단체 협약에 따라 지난 7월 29일 2/4분기 노사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새 경영진과 새 노조 집행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난 상견례 차원으로 열렸지만, 회사의 여러 현안을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조 지역 지회장들과 경영진의 비대면 간담회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합의한 소정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노동조합은 전임 집행부 몇 명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조직은 아닙니다. 노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모든 조합원 여러분, 특별히 노조 집행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부서와 함께하고 계신 '동지'들의 참여와 헌신이 노동조합의 원동력입니다.

노보 272호 1면에는 22대 노동조합의 선봉에 선 조합원들을 소개하며 마치려 합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도하며, 더위/코로나에 굴하지 않고 더 힘차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투쟁!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위원장 반태경

○중앙 집행위원회

장상원(수석, 기술국) 김중호(보도국) 정민아(제작국) 권병석(TV제작국) 심정민(경영협회) 부위원장
장규석(공정방송위원회 간사, 홍영선(성평등위원회 간사, 강민정(지역국협의회장(부산), 최인수(사무국장)

○공정방송위원회

장규석(간사, 보도국) 서병석(제작국) 이승규(TV제작국)

○성평등위원회

홍영선(간사, 보도국) 박선영(제작국) 박준형(디지털콘텐츠국) 배윤(TV제작국) 장혜원(경영협회)

○회계 감사

송정훈(제작국) 송주열(TV제작국)

○노보 편집부

김지수(편집부장, 디지털콘텐츠국) 김태현(보도국) 서연미(제작국) 이정우C(디지털콘텐츠국)
장부윤(경영협회) 장세정(TV제작국)

02 춘노조 랄랄라 : 이슈가 됐던 사내외 말말말

0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결합판매 광고의 위기

04 주인공은 나야나 : MZ세대 38기 조합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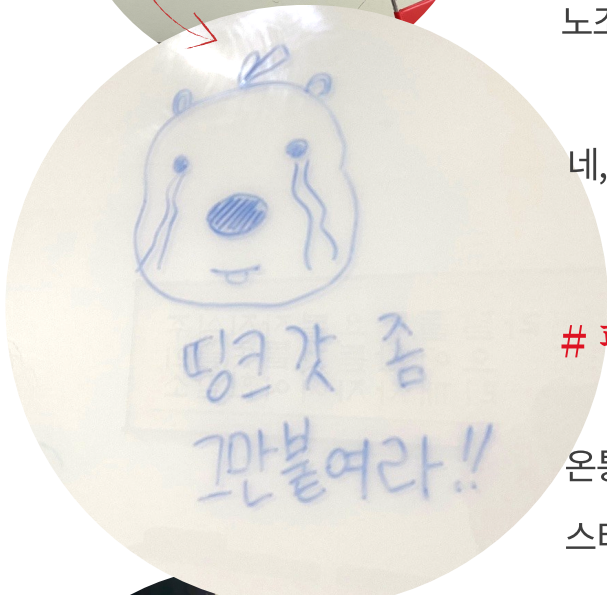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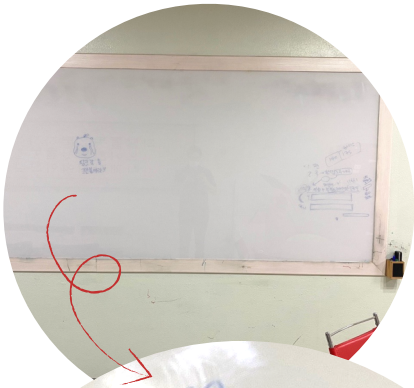
06 어떤가요 : 반바지와 슬리퍼 근무기

07 아름다운 당신에게 : 아이돌 부장, 권지미씨

08 사무국장 브리핑 : 임단협과 노사협의회



춘노조 랄랄라는 말말말 코너
입니다. 맘 상하거나 원망하
지는 않기로 해요! 메에에~



선배, 반쪽 노조원

친애하는 사장님께서 얼마 전, 늦은 시각에 한 기자에게 연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안부 전화라고 해도 뜨악할 텐데, 기사에 관한 통화였다고 합니다. CBS의 공정방송 투쟁 역사와 보도준칙 등을 모르실 리 없을 텐데 말이죠...

노조의 문제제기에 어느 정도 수긍하셨지만, 이 한마디를 남기시더군요.

"선후배끼리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게 무슨 문제냐."

그런데요, 사장님. 직접적인 애정(?) 표현은 삼가세요! 그게 기사에 관한 문제라면 더더욱!

사장님께서서는 노조와 만나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는 최장기 파업 때 노조원이었어. 지금도 절반은 노조원이야"라고 말이죠.

네, 그 마음은 감사합니다. 임단협 투쟁 함께 해주세요! (주먹 불끈)

팩폭 용자를 찾습니다

온통 '핑크갓'입니다. 회사 내 온 벽, 로비 곳곳, 엘리베이터마다, 종이컵에도, 간부들의 스마트폰 뒷면 스티커까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핑크갓'을 새겨야 할 곳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이 아닐는지요?

그나저나 2층 복도 화이트보드에 저 귀여운 그림과 뼈 있는 글을 남기신 '용자'는 누구신가요???

누가 역겨울까

초유의 수돗물 중단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춘천시장이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일시적으로 자가격리됐다는 기사를 최근 강원CBS에서 썼습니다. 박수받을 비판 기사죠.

그런데 춘천시 홍보담당자가 자기 페이스북에 '종교방송을 표방하는 매체의 기자가 하는 짓을 보면서 난 역겨움을 느꼈다'고 모욕하고, '기자 3억명 중 1명만 인간이 된다'는 조롱을 썼다네요. ㅈㅈ

CBS 기자협회에서 나서 CBS 저널리즘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해당 기자에 대한 모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성명을 냈고, 지역 동료기자들의 릴레이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가 위기라고?

그것이 알고싶죠?
무엇이든
들어보세요

방송광고 결합판매의 운명 / 경영협회 장부윤 조합원

방송광고, 특히 결합판매 의존도가 높은 CBS가 위태롭습니다. 결합판매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지난해 4월 제기되고, 올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결합판매를 전면 재검토하는 제도개선연구반을 만들면서요. 방통위는 현재 결정과 관계없이 제도 손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느 날 갑자기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면,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받거나 일몰 기간 결합판매 비중이 단계적으로 축소된 뒤 사라질 겁니다. 회사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죠. 분명한 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결합판매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겁니다. 위에 손질이라고 표현했지만, 방통위가 지난해 7월 발간한 「라디오방송 진흥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보면 결합판매 제도 개선(?)이 정책목표 중의 하나로 쓰여 있거든요.

총 매출에서 결합판매 금액과 CBS 매체 영향력을 보고 붙인 광고 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큰 비중이 결합판매입니다. 결합판매 제도의 운명에 따라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날아간다고 볼 수도 있죠.

'결합판매는 자본과 시장의 논리로부터 공정방송을 지키는 방패 중 하나입니다. CBS노조는 언론노조에서 이런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대응 TF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가 주관하는 연구반 정례회의에 CBS는 중소방송사 대표로 참여해 CBS와 중소방송사의 입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결합판매 문제는 노사가 따로 없는 공동의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관심 갖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세요.

결합판매

KBS·MBC·SBS 광고는 중소·지역방송사 광고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코바코 등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CBS는 MBC와 묶여있습니다. 예를 들어 MBC 드라마 광고를 판매하면 CBS라디오에도 방통위가 정한 고시에 따라 일정 비율의 광고 판매 분배가 이뤄지는 겁니다.

중소·지역 방송사들의 광고수익을 보전해주는 일종의 '교차보조' 제도입니다.





MZ 조합원들이 왔다!

코로나19 상황에 CBS의 취업문을 뚫고 들어와 다사다난한 수습 생활을 마치고 춘노조에 가입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불타는 열정과 톡톡 튀는 개성의 38기 신입 9명! 기수대표인 장한별 조합원이 동기들을 소개한다. MBTI까지!



서재의 PD / 서울 제작국

울빠미형 인간이었던 그는 이제 매일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드럼을 취미삼아 연주하게 되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금보다 더 날카롭게 시사이슈를 바라보고, 더 섬세하게 음악을 다루는 PD가 되어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그 날을 꿈꾼다. 언젠가 사회의 경종과 사람들의 마음을 드럼치듯 두드릴 모습을 기대해본다.

임민정 기자 / 서울 보도국

컨디션에 따라 INFP와 ENFP를 오락가락하지만 기사에 대한 열정만큼은 한결같은 임민정. 그녀는 요즘 선악의 구분이 모호한 세상사를 판단하는 일에 부쩍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일수록 더욱 더 기자의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그를 응원한다.



김정록 기자 / 서울 보도국

노조에 기고할 사진을 찾기 위해 온종일 사진첩을 뒤져보았지만 1,557장의 수많은 사진들 속에는 그동안 찾아갔던 현장과 사람들 뿐, 자신의 사진 한 장 없었다는 김정록. 앞으로도 자기 얼굴을 남기기보다 현장을 기록하고 사람을 기억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는... 그의 얼굴만은 우리가 기억해주자. (노조의 요청으로 뒤늦게 셀카를 찍은 장소가 경찰서였다는...)



허지원 기자 / 서울 보도국

강아지와 연극을 사랑하며, 거리를 걸을 때조차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INFJ 그 자체 허지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는 기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부끄럽지 않은 기사를 쓰기 위해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는 그는 오늘도 라떼 한 잔과 함께 신입의 고민을 들어주실 선배님을 기다린다고.





장한별 엔지니어 / 서울 기술국

무심하게 밤길을 걷다 순찰 중인 경찰에게 검문을 받아본 아픈 기억이 있는 장한별. 험상궂은 인상으로 인한 솔한 오해를 막아보고자 알 없는 안경도 쓰고 다니는 그는 사실 속이 여러 디어린 INFJ. 항상 토크의 정확함과 음악의 감동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는 노력파. 그가 있기에 기술국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 아마도.



백담 기자 / 서울 보도국

누군가는 쉬는 날 집에서 혼자 쉬는 것이 삶의 낙이라고 하지만, 혼자 있으면 좀이 쑤서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휴머니스트 백담. 소외된 사람들, 아픈 이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현장감이 물씬 느껴지는 생생한 기사를 읽게 될 날이 기다려진다.



김상윤 엔지니어 / 서울 기술국

본인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기술국의 감초, 평화를 사랑하는 ISFJ 김상윤. 범생이 같은 외견과는 달리 은근히 잘 놀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은 그의 반전매력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나.(검증필요) 항상 주변을 밝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그가 있는 한 CBS에는 아름다운 미래와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현지 PD / 서울 TV제작국

누군가 자신에게 인생의 모토를 묻는다면 '예쁘고 착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살기'라고 답한다. 공상을 좋아해 매 순간이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 속의 한 장면이라는 생각으로 산다고.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홀린 듯 끝까지 보게 되고 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그. ENFJ답게 정도, 웃음도, 눈물도 많은 그를 우연히 만난다면 홀린 듯 아는 척해보자.



국재일 아나운서 / 부산CBS

"저는 지금까지 9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0번째 금메달, CBS 자원증을 목에 걸고 싶습니다"라고 최종면접에서 당차게 발표한 ESFJ 부산 상남자 국재일(서울 태생). 그토록 바라던 10번째 금메달을 걸고 방송 중인 그는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진행하는 멋진 아나운서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의 성장을 지켜보자.

반바지를 허하라!

유쾌한 반란, 반바지 출근기 / 디지털콘텐츠국 이정우 조합원

덥다. 너무 덥다. 그래도 반바지 출근 괜찮을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는 단 한 명의 선배님뿐. 분명 내 반바지를 본 것 같은데... 별말 없이 인사를 나눴다. 나이 차이 때문이었을까? 성별이 달라서? 아니면 굳이 지적하기 싫어서? 나쁘게 보이지 않아서?... 나는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날 동료들로부터 이런 저런 피드백을 받았다. “복장이 그게 뭐냐” 친한 선배였다. “너무 튀는거 아니냐, 새 부서 발령받은지도 얼마 안됐는데”라는 말도 누군가 했다. “왜, 어때~”라는 응원(?)도 적지 않았다. “지구온난화 아니냐. 에너지 절약도 돼”라는 지지였다.

매너일까, 금기일까. ‘동료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부서 특성상 정장 차림이 불가피한 곳도 있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그래도 35도를 넘는 폭염에 나는 시~원했다. 다들 긴바지, 나만 반바지. 나름의 짜릿함!

동지들이여~ 더워만 말고 동참해달라. 반바지가 더 편하다는 걸 그대들도 알지 않는가!



슬리퍼, 유레카!

슬리퍼 신고 어디까지 가봤니? / 보도국 김태현 조합원

"저...오늘 슬리퍼 신고 출근할게요"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 아니, 상상도 해본 적 없다.

그러다 기자 생활 6년 만에 회사 내근을 하게 됐다. 어엿한 '내 자리'가 생긴 것이다. 옆 책상을 흘깃, 복도에서 만난 선후배와 동료들도 흘깃. 나도 어엿한 슬리퍼를 장만하게 됐다.

자! 이제 관건은 어디까지 다닐 것인가. 화장실? 다른 층? 내친김에 밖으로? 당당하게! 점심시간 뒷문을 나서 파라곤까지 걸었다. 심리적으로 꽤 먼 거리.. 다들 내 발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은 뭐지.

그.런.데. 적잖은 사람들이 슬리퍼로 거리를 누비는 것이 아닌가. 아재 인증이 아닌 것이다.

혹시 동지들도 슬리퍼 족의 일원인가? 이 사진들을 보시라. 내가 회사를 돌아다니며 찍은 것들이다. 어떤가. 비 오는 날엔 맨발의 신사도 되어 보련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보직부장이 되어버린 '덕업일치' 정재훈 기자의 팬미팅 / 보도국 김태현 조합원

돌아와요~ 아이돌 부장

ㄱ ㅏ ~~~ 지난 29일 CBS 본사 로비가 환호성으로 시끌시끌. 연예인이라도 나타난 걸까. 회전문으로 걸어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보도국 정재훈 산업부장. 쑥스러워하는 그를 둘러싼 이들은 유튜브 채널 '아이돌 부장' 구독자들이다.



정재훈 부장은 2년 전부터 방탄소년단(BTS) 덕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BTS 팬들과 소통해왔다. 구독자 3만5천명. 오랜 친구를 뜻하는 순우리말 '아띠'는 정 부장이 구독자들을 부르는 애칭이다. 최근 정 부장이 보직 부장으로 복귀하면서 채널 운영이 잠정 중단되자, 구독자들이 직접 회사까지 찾아와 응원에 나섰던 것.

구독자들은 손수 만든 쿠키와 음료 등 간식 200개를 경비원과 청소부 등 서울 본사에서 일하는 CBS라이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경기의 정부에서 왔다는 한 구독자는 "얼마 전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보고 '아띠' 친구들끼리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하루빨리 다시 아이돌 부장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했다.



*덕업일치 : 덕질과 직업이 일치한다는 뜻으로 관심사를 직업으로 삼은 경우를 말함.

누구도 그녀와 웃음 인사를 나누지 않고는 출퇴근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아, 그분!'으로 회자됐던 인물, 큰 키에 '전직 배구선수였다더라'는 소문의 주인공. 본사 1층 안내데스크 권지미씨를 소개합니다. / TV제작국 장세정 조합원



안녕하세요 권지미입니다.



실례일 것 같지만...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배구선수나 모델 출신이세요?



제가요? ㅎㅎ 예전에 어떤 일본 배구선수를 닮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실제 그런 소문이 있다고요? (당황) 제 동생이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와전됐나 봐요. 하하하. 아무래도 제가 키가 커서 그런 오해가 생겼나? 전에 호텔에서 안내도 했었고, 이직 전에는 일반 사무직을 했어요. 그때 잦은 야근 때문에 몸이 많이 상해서 근무시간이 짧은 일을 찾다가 2018년 8월부터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외우고 있다는데, 정말이에요?

출입증을 찍으면 정보가 뜨는데, 업무에 빨리 적하려고 처음에 얼굴과 이름을 열심히 외웠어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같은 분께 여러 번 인사하는 일이 많아요. 그게 불편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한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직업병이라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 번 인사해도 늘 밝게 받아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에 많이들 걱정했어요.

남편의 직장동료가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남편이 밀접접촉자였어요. 저는 배우자라 굳이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업무 특성상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접촉하기 때문에 검사를 자원했어요. 근데 양성판정이 나온 거예요. 다행히 증상이 심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주셨는데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노보를 통해 뒤늦게 전하고 싶어요.



사무국장 브리핑



임단협을 다시 시작했지만
거리 두기
노사의 간극도 조합원들과의 간격도 좁힙시다
2m

노사협의회

단체협약을 시행하는데 따르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단협 위임 사항과 취업규칙 및 회사규정, 채용과 인력 배치, 임금 제도 등을 비롯해 조합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 까지 다룹니다.

아무래도 노조가 먼저 나서야 사측이 움직일 것 같아 임단협과 노사협의회를 22대 집행부 출범 직후부터 요구해왔습니다. 그렇게 지난 7월 19일 임단협 실무협의를 다시 시작했고 29일 노사협의회가 열려 노사가 마주 앉았지만, 거리는 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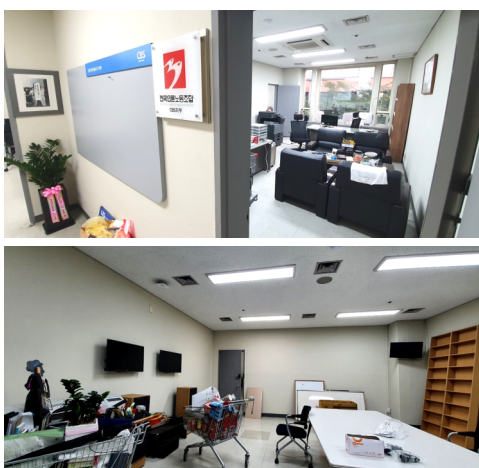
노조는 임단협 실무협에서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임단협의 주요 의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협 이슈 중 제주와 강원영동의 임금 정상화도 핵심입니다. 노조는 3차 평가 기간이 종료된 만큼 100% 수준의 호봉제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측은 구체적인 안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노조조합원으로부터 고충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해 처리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임단협 협상이 다시 진행됩니다. 사측이 별다른 입장을 가져오지 않아 실망스럽긴 했지만, 새로운 출발선에서 승리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노사는 고충처리위원회도 구성합니다. 역시 노조의 제안에 의해서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기구이지만 한동안 유명무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합원 한분 한분의 고충을 함께 처리해나가겠습니다. 노조는 위원 명단을 사측에 통보했으나, 아직 사측 위원 명단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조 사무실을 본사 2층으로 옮겼습니다. 방이 2개인데 사무공간은 작은 방을 쓰고, 큰 방은 회의도 하고, 커피와 차도 마실 수 있는 카페 같은 공간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8월 중순까지 마쳐보려고 합니다. 둘러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노조의 새 사무실은 조합원들과의 거리를 더욱 좁히는 사랑방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못합니다. 공간 정리를 마무리하면 그래도 당분간 삼삼오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노조에 여러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단협 승리 투쟁에 함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www.cbsunion.or.kr
02.2650.7390